



Quarterly NEWS LETTER _ 03 (2011.10)

GT News_03

♣ 2011년 제 5차 푸른나무 재단_ 방북 지원

- 푸른나무는 9월 15일부터 9월 24일 까지 9박 10일 동안 북한의 고아원과 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총 USD \$98,000의 시설 및 식량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난 4월 개소한 <평양 민족장애인.원아지원 협력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지원 내용을 협의하고, 평양(미림학원), 황해북도(사리원 육아원,애육원)에 있는 3곳의 고아원과 강원도, 평안남도의 특수학교(농아학교)를 방문하여 물자지원과 그간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조선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하여 푸른나무와 상호 단독 추진하기로 합의서를 맺고, 평양 장애인 종합회복센터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지난 6월_ 4차 방북시 푸른나무의 후원시설로 북측에 추가 요청했던 황해북도의 <황주학원> 지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황해북도의 모든 고아들을 도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밀가루,강냉이등을 제외한 쌀 식량지원이 불가하여 대체 방안으로 쌀떡(식품류는 가능함) 지원 방법을 단동에서 논의하였고, 조선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올해 겨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방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푸른나무 민족 장애인.원아지원 협력 사무소, 합의서 체결 (9.23), 장애인 휠체어 탁구 선수>







<황해북도 육아원 원아들, 지원 물품, 강원도 원산 농아학교 학생들>







♣ 진 행 사 업

• 통일인재 양성

: 2011 코스타 코리아(Kosta Korea, 8/22~8/25 명지대학교)와 협력하여 푸른나무_ 북한 강의시간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의에 참석해 주셨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로는 아래 네분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안인섭 교수 (총신대교수, 기독통일학회 총무), 황병덕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테레사 오 (NKB 공동대표, 새터민), 양운철 박사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수실 수석위원)











• 푸른나무_캐나다(Canada) 재단 설립

: 지난 8월 24일 캐나다에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명칭은 GREENTREE CHARITY FOUNDATION INTERNATIONAL입니다. 이로써 푸른나무는 한국과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주본부 발대식

: 푸른나무의 미주본부 발대식이 10월 10일 오후 4시에 LA의 충현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미주 본부의 설립으로 북미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민족 평화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Network을 통하여 북녘의 형제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푸른나무 미주본부 발대식에 미주지역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행정비 ZERO 운동

: 푸른나무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100% 북한 지원사업에 쓰는 "행정비 ZERO"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푸른나무에서는 행정비를 후원하는 후원이사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일내에 행정비 ZERO의 목표를 달성하여 북한의 형제들과 더 많이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션(Sean)의 105명 아동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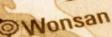
: 푸른나무 창립 예배때 북한 어린이 100명을 후원하기로 약정한 션(Sean)이지난 8월부터 매월 북한의 고아 105명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평양의 고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등학교인 <미림학원>에사용되어집니다.



• ㈜참피온 탁구대 무상기증

: 북한 최초로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 참가를 위해 훈련하고 있는 북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참피온에서 경기용 탁구대 6개를 무료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 공지사항

Korea

- 푸른나무가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25개 고아원,장애인 시설중 원하시는 지역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기관.단체 및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나무의 브로셔와 소개 동영상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나 기관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4분기 푸른나무 보도자료 입니다. 복음신문(2011.8.28) -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2011.9.30) - "남북관계 해빙 무드…한국교회 지원 적극 나설때" 국민일보(2011.10.1) - "북녘 땅 고아 1만 2000여명…교회.크리스천, 1대1 연결 어때요"
- 2011' 상반기 푸른나무 보도자료 (GreenTree Press Release)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시설 _ 지원 요청 품목

9월 방북시 북한 후원시설에서 지원 요청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나무 사무국 TEL. 070-4320-4200)

조선 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	①장애자 실습장 운영품(원단,목공기계,장애인보장구 및 휠체어 조립공장) ②탁구등 체육 기자재 (탁구공,라켓,펜스)
평양 미림학원	①부식물 이송을 위한 트럭_ USD \$ 12,000 ②기숙사 지붕수리(1,200㎡)_ USD \$ 6,000 ③부엌 식탁교체 : 8인용 식탁 50개 _ USD \$ 4,000
강원도 원산 농아학교	기숙사 돌기와 수리작업(1,200㎡)_ USD \$ 5,000
사리원 애육원	①농지 및 부식물 이송을 위한 경운기 ②전기솥_100 <i>l</i> 2개
사리원 콩우유 빵공장	자동차부속_헤드라이트, 스타트모타 등
평남 성천 농아학교	①기숙사 지붕수리(1,500㎡)_ USD \$ 7,000 ②교실 창문교체: 130짝 _ USD \$ 7,500 ③겨울내복, 모포 ④경운기 바퀴_ 10짝 ⑤세면장 보수 ⑥태양빛 전지





2011년 5차 푸른나무 재단 _방북 지원 보고서

방문 기간: 2011.9.15 (수) - 2011. 9.24 (토), 9박10일

방문자 명단: 총 5명

☞ 신영순 선교사 (평양 민족 장애인.원아지원 협력사무소 소장 / 푸른나무)

☞ 김인선 사무총장 (푸른나무)

☞ 원미나 권사 (미국 아가씨재단)

☞ 이정임 권사 (미국 H&G재단)

☞ 김은옥 사모 (베델연합감리교회, 산타클라라)

방북 경로 : 인천 - 심양 & 단동 - 평양 - 심양 - 인천.

방문 지역: 평양,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평안남도 성천, 금강산

지원 물자: 식량 (강냉이) 60톤, 휠체어 100대, 지팡이 700개, 어린이 내복, 설탕, 식용유, 신발,

타올, 항생제등 의약품, 비누등 생필품

총지원 금액: 98,000 달러 (USD)

후원단체 및 개인:

산호세온누리교회, 훼잇빌한인장로교회, 그린스브로한인제일장로교회, 아가씨재단, H&G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미국장로교선교회, 에젤선교회, 션, 소망교회 한울선교회, 베델연합감리교회, 소망재단, 이석원, 김은영, 씨애틀 은혜장로교회, Sara Shin, 안향실, 이정애, 여근선, Richard Martin, Mark S. Cho, 길은정, 유니스김, 인랜드교회(권사회, 도르가 선교회, 새소망부, 김유니스목사, 신은일, 이점선, 한복희, 조명자, 신정자, 서혜선, 최영순, 박연옥, 길은진, 박성희, 황진희, 김샤론), 연세대학교회 여선교회, 씨애틀 형제교회, 새소망 교회. 파사데나 장로교회, 그 외 푸른나무 리본 1대1 아동 CMS후원자 및 개인 후원자

9월 15일_ 이른 새벽 인천공항에서 5명의 푸른나무 일행들은 함께 모여 10개의 이민 가방에 준비한 고아들을 위한 내복과 의약품 짐을 부치고, 심양행 비행기에 올랐다.

심양 도착후 곧바로 단동으로 가서 이번에 화차로 지원하는 강냉이 60톤의 선적 날짜와 운송 화차 현황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북녘에 쌀떡을 지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쌀떡을 우리 고아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의논한 후, 다음날 심양으로 돌아와 9월17일 오후 3시 고려항공편으로 심양을 출발하여 저녁에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 도착 다음날 9월18일 아침은 칠골교회에서의 예배를 시작으로 방북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부활절 예배때 뵈었던 황민우목사님과 성가대, 그리고 성도님들과 반가운 만남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민족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북녘 동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욱 강하게 느낄수 있었다.







9월 19일 오전_ 우리 일행의 조선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방문을 현관에 나와서 반갑게 마중해주는 김문철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평양 장애인 종합 회복센터 건축을 준비하며 푸른나무재단이 가지고 간 회복센터 건축설계 도면과 이번 방문에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맺어야 할 합의서초안등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었다.

지난 4월에 현판식을 마친 <민족 장애자.원아지원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51개의 고아원지원과 장애인, 노인등 많은 사업들을 협력해 나갈것을 서로 협의했다. 이 후 우리 일행들이 대동강 장애자 문화센터에 들어서자, 농아 예술인들은 무용을 연습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 자매의 노래를 시작으로 우리를 위한 즉석 공연이 시작되어 농아들의 춤과 지체 장애인의 장구를 치는 모습에 모두 감동했다.

장애자 체육 훈련장에 들어서니, 이분희 탁구 코치와 장애인 탁구 선수들이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Sue Kinsler (신영순) 선교사의 7년 여간의 지원과 협력이 열매 맺게되어 드디어 12월 중에는 IPC 와 APC 위원회에 북측 장애인 체육회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제는 장애인 탁구 선수들도 많이 늘어났다. 의족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탁구 연습에 여념없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열정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 외에 보호련맹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직업재활과 특수교육을 위하여 생산 실습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자들을 위한 직업재활이 시급한 상황에서 생산적인 작업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봉재 공장과 목공 제작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조립공장들을 세워 직업재활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푸른나무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같다.

2010년 12월_ 북녘에 조선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첫번째행사로 <평양 비전문가 탁구 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호응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고취시켰고, 올해 처음으로 6월 18일이 북한의 <장애인의 날>로 정해졌다. 10월말에도 <세계 장애인의날> 기념 행사로 제 2회 탁구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국 대회로 확장한다고 한다.푸른나무는 이 전국 탁구 대회를 함께 후원하기로 하고, 탁구대와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번 방문중에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_ 9월 23일 조선장애자 보호련맹과 푸른나무는 수년동안 Sue Kinsler (신영순) 선교사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어받아 북녘의 모든 장애인 사업과 고아들, 노인 관련 사업들을 상호 단독 추진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평양장애인종합회복센터' 건립에 관한 모든 사업도 상호단독 추진하기로 합의서를 맺었다. 평양 장애인 종합회복센터는 미래 남과 북이 통일 복지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평양 미림학원은_ 8세부터 17세 까지의 500여명의 고아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는 중등학원 (고아원) 이다. 수년간 신영순 선교사를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푸른나무에서는 1:1 후원과 지난 8월 부터 이 학교의 8,9세 어린이 100여명을 지원하는 한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각 학교 단위마다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 식량과 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산물 이동과 기숙사 난방용 석탄을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운송트럭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리원 애육원은_ 황해북도에 있는 6-7세의 고아들을 위한 시설이다. 3년째 이곳을 후원하고 있는 아가씨 재단 대표인 원미나 권사님과 이번에도 함께 방문하였다. 아가씨 재단에서 지난 6월에 기증해 주었던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세탁기, 선풍기 덕분에 이번 여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며 이곳 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각 교실 과 주방 시설등을 둘러보며 보내준 식량과 생필품들을 모니터링하였다. 무척이나 작아 보이는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생필품과 영양 식량을 보내고, 우리 민족의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을 먹일 수 있기를 바라며 가슴이 아파왔다...

황해북도 사리원지역은 2003년 6월부터 신영순 선교사가 오랫동안 지원을 해온 낯익은 곳이다. 3년전 부터 원아들을 후원하고 있는 미국의 H&G 재단의 대표이신 이정임 권사님과 함께 방문하여,지난 6월에 지원한 빨래 기계와 냉동기등 확인하고 원아들의 상황을 둘러보았다. 우리의 지속적인 만남과 지원으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쌓여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리원 콩우유. 빵공장은_ 지난달 보내준 밀가루로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빵을 먹음직스럽게 구어내고 있었다. 적은 물자 공급에도 고마워하는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고 떠나왔다.

이번 방북 성과중의 또 하나는 전부터 푸른나무가 추가 지원하고자 요청했었던 황주학원 (고아원) 지원 협의가 이루어졌다. 황주학원은 황해북도의 육아원.애육원의 고아(원아)들이 자라 8세가 되면 황주에 있는 황주학원으로 옮겨 기숙하며 중등과정을 공부하는 곳이다. 이제 황해북도의 모든 원아들을 도울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녘에 있는 51개의 고아원.장애인 시설의 11,000명 모든 원아들과 장애인들에게 배부르게 밥을 먹이고, 건강한 민족 통일을 이루는 그 날을 소망해본다.

일행이 23일 아침 2시간 동안 험한 길을 달려서 도착한 평안남도 성천 농아 특수학교는_ 올해 3월부터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지원을 시작해 주신 특별한 곳이다. 부모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올해 초까지 156명이었던 농아들이 4월 신학기에 83명이 더 늘었다고 했다. 부엌과 세면장의 지붕이 올 여름 장마에 무너져내려 보수중에 있었다. 개보수와 더불어 더 많은 농아들게 생활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한 것은 이번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보내주신 정기 후원 금으로 식량과 생필품들 지원할 수 있었고, 건물 개보수도 지원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추위 가 오기전에 이제 겨울 내복과 담요를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







이번 방북 기간 중에는 우리 일행에게 금강산 방문도 이루어졌다. "그리운 금강산 " 의 노래속에서 만 그리던 그 곳에 올라보니 금수강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 7년동안 하루 4-5천명의 남측 관광객으로 붐비던 금강산이 지금은 중국과 유럽의 몇몇 관광객만 눈에 띄였다. 그곳에서 만난 안내들과 북측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다시 금강산 관광이 개통되 어 남과 북이 만나기를 바라고 남측의 동포들을 그리워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족 화해와 평화! 그 날을 준비하는 푸른나무 재단 일행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2011년 5차 지원 방북일정을 은혜 가운데모두 마치고 심양으로 가는 고려항공에 올랐다.

보고서를 마치며,

푸른나무 재단이 건강한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귀한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북녘의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돌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 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나눔을 이루어 통일 복지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이 길은 복음화통일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의의 옷을 입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됨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푸른나무 사무총장 김인선 드림 -

*첨부: 5차 방북 지원 사진



Wonsan



♣ 2011. 제 5차 지원 방북 사진



중국은 통한 식량지원



장애인 탁구 선수들



원산 농아학교 학생등



사리원 애육원 원아든



사리원 콩우유 빵공장



성천 농아학교 지원품



칠곡교회 예배를 마치고



평양 미립학원 학생들



원산 농아학교 실습현장



항해북도 육아원 지원품



성천 농아학교 학생들과



농아가 제작한 자전거 모형



조선장애자 보호연맹과 합의서체결



평양 미립학원 지원품



사리원 애육원 지원품



항해북도 육아원 원아든



성천 농아학교 학생들



급강산 구룡폭포에서